



‘선(禪)건축가’ 김 개 천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이 언제나 설법하고 있다’고 했다. 세상에 설법하지 않는 존재, 불사(佛事)하지 않는 존재는 없으며 그것은 무정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일렀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도 ‘무정설법(無情說法)’을 할 수 있을까?

김개천(46·이도건축 대표)씨는 그 가능성을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준 건축가다.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들고 세계 각지에서 10여 년의 ‘건축 구도작업’을 벌인 그는 결국 “건축을 통해 하려던 말이 불경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 후 건축과 불교의 길이 틀어 아님을 느끼고 동국대 대각전과 담양 정토사 법당을 비롯, 최근에는 백담사 만해마을을 설계해 ‘선(禪)의 건축’을 제시했다. 형(形)도 색(色)도 공간분법도 기존의 사찰 양식에서 멀리 벗어난 건축. 그러나 양식의 과거를 통해 건축에 담고자 했던 그의 정신 세계는 견고했다.

“침묵하지 않지만 침묵하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드러내거나 요구하는 것이 없는 ‘밝은 침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명묵(明默)의 세계는, 항상 여여(如如)한 구족(具足)의 세계이면서 일상적 미를 넘어서 본적(本寂)의 진여(眞如)와도 맞닿아 있지요.”

개념적으로 틀리기 쉬운 김개천의 선(禪)은 그의 건축물에서 생생하게 살아난다. 그가 설계한 정토사 법당은 색(色)을 통해 공(空)까지 드러낸 ‘일획의 건축’이라 평가받는다. 벽이 따로 없는 법당에서는 문을 모두 닫으면 절대 유(有)의 완전한 건축 공간이 되고, 문을 완전히 열면 건축 공간은 무(無)가 되면서 자연 공간으로 전격 변환된다. 또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과 그림자는 꼭 닫힌 격자 문 위에 공존하고, 그곳에 비치는 산그림자는 어느덧 벽이라는 건축적 요소가 되어 버린다. 건축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자연이 되고 자연이 건축이 되는 합일(合一)의 경지다.

“제 건축은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건축입니다. 그래서 변한 바가 없으면서도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완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 건축과는 구별될 수 있겠지요.”

선은 완성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김개천 씨는 작위적인 완성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건축 소재를 세련되게 다듬으려 애쓰지도 않았고, 나열과 합판 등 통속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가장 싸고 흔한 시멘트를 이용해



◇꼭 닫힌 문이 벽이 되어 산의 실루엣을 담는 정토사법당.



◇닫힌 문을 활짝열면 건축공간이 자연공간으로 치환되는 정토사법당.



◇걸을 때마다 시공간이 변화무쌍하게 느껴지는 만해마을 법당.

건축가 김개천은?

개천절날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름이 개천(開天)이 된 김개천(46·법명 石千, 호 雲齋)씨는 건축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이며 또한 불교철학자이다. 스물 네 살때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알래스카,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설계사무소, 건설현장 등에 뛰어들어 10년에 가깝도록 ‘건축구도’ 생활을 했다. 중앙대 대학원 건축학과를 거쳐, 미국 파사데나 아트센터 컬리지 오브 디자인(Pasadena Artcenter of Design)에서 환경디자인을 수학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석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이도

스, 알래스카,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설계사무소, 건설현장 등에 뛰어들어 10년에 가깝도록 ‘건축구도’ 생활을 했다. 중앙대 대학원 건축학과를 거쳐, 미국 파사데나 아트센터 컬리지 오브 디자인(Pasadena Artcenter of Design)에서 환경디자인을 수학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석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이도

(二圖) 건축 대표이며 서울대와 국민대에 출강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백담사 만해마을, 관자재보살(동국대 법당 대각전), 담양 정토사, 양평 강하미술관, 창너도 부처도 없다(G.V빌딩), 감나무 부처 콘크리트 부처(하산리주택),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0주택) 등이 있다.



“내 건축은 스스로 존재해요”

건축을 화두로 10여년 외국서 구도행
만해마을 설계로 ‘선(禪)건축’ 제시
일상적 미 벗어난 명묵(明默)세계 펼쳐
정토사 법당은 자연·건축 하나되는 공간
“의미없이 모방하는 예술계 풍토 우려”

경건의 공간을 만들었다. 가장 하찮은 재료로 평범을 넘는 지극한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스님이 단순하고 평범한 웃을 입는 것과 통한다.

“진실에 가까이 있는 아름다움은 언제 어디서나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지극한 아름다움은 본디 기쁜 것으로, 감상자에게 깊이를 알 수 없는 희열을 가져다주지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형(形)’으로 ‘미(美)’를 이룬 것은 ‘도(道)’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개천 씨는 전통의 양식을 의미없이 모방하고 답습하는 예술계의 풍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전통에의 향수는 문화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며, 거기서 머무는 가치는 미미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진실을 이룩하지 못한 건축은 ‘사법(邪法)’과 같이 일시적 만족은 줄 수 있을지언정, 지속적 평안함으로 일체를 선(善)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자연이 주는 것과 같은 일상의 감동을 전하려는 선건축가 김개천 씨. 전하려는 감동은 건축 너머에 있기에, 그는 2000개 작품이 넘는 자신의 건축물에 별다른 애착이 없다고 얘기한다. 또한 그가 이룩한 건축물에 그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나오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도 미래도 떠나 ‘지금 이 순간’ 자유로운 건축을 꿈꾸는 그의 목표는 언제나 ‘현재의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글=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자연과 건축이 합일된 담양 정토사 법당. 모든 법당을 담기도 하고 때로는 땅의 연정이 된다.

←←←←←

에스콤을 만나는 순간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에스콤은 무인경비 시스템을 통해 가정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또한 평안한 삶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중요와 희망이 가득한 세상! 지금 에스콤으로 오십시오!**

에스콤과 함께할 불자가족(총판 및 대리점)을 찾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란?

가계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경비구역의 경비업무를 경비원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장치를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인 경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지속적으로 그 기능이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CCTV카메라를 이용한 경비 시스템을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은 녹화 감시 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며 그 녹화도 아직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고 디지털화 되어 있어 대부분 건물 경비에 사용되며 일반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장치로는 거리가 있었다. 이 번 S-COM에서 개발한 제품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히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어디서나 설치된 장소를 본인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난 및 가스, 화재 방지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정 및 점포에서 든든한 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관리 지사 모집

▶ 모집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 전주, 원주, 대전, 인천, 경기
▶ 모집자격 : 금융거래 하자 없는 지역유지료 순 자기 자본 2천만 이상 가능자

◀◀◀◀◀◀

●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5호 진성프라자 404호 ● 문의전화 : 1544-1088 (전국)

[가정용 CC카메라 도난 경보기 S-COM(에스콤)]

S-COM을 설치하시면, 밖에서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

“에스콤이란?”

보안 및 경비를 필요로 하는 사찰, 사무실, 고급주택, 상점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침입자의 영상을 잡아내어 사용자의 PC 또는 PDA 등으로 실시간 동영상 보내주는 컴퓨터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내주기도 하며 사용자가 지정하는 8곳에 침입사실을 전화 또는 메세지로 통보하여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나, 가스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비실과 관리실, 사용자 휴대폰 등 사용자가 지정하는 8곳으로 자동 연락해드립니다.

들, 도둑이 들어오면 사용자가 지정한 8곳으로 통보할 뿐만 아니라 본사 상황실에서 관별하여 인근 파출소나 112에 출동을 신고합니다.

셋, 아이들이 집에서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외부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 지체 부자유자나 노부모님들에게는 비상 목걸이를 그려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로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 상황실에서 관별하여 119에 출동 신고합니다.

“제품의 구성”

+